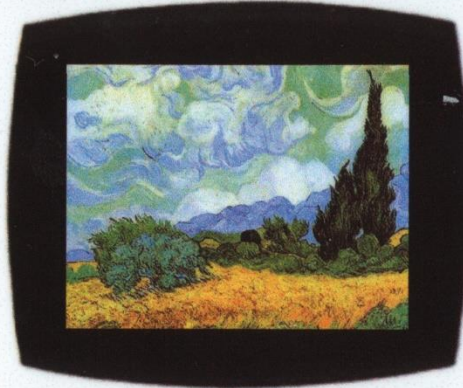


음향(AUDIO)

(NA) 고희의 깊고 풍부한 뭉게구름도,



(NA) 카렌 탈렌의 강렬했던 첫 데이트의 기억도,



(NA) 프리드리히의 200년동안 변함없는 고즈넉한 일출의 풍경도,



(NA) 물을 타지 않은 유화기에 전할 수 있는 가치.



(NA) 그리고,



영상(VIDEO)

빈센트 반 고희 작품, 「삼나무가 있는 밀밭」 느리게 Fade in 되었다가 다시 Fade out

카렌 탈렌의 작품, 「My Modern Met」 느리게 Fade in 되었다가 다시 Fade out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의 「노이브란덴부르크」 느리게 Fade in 되었다가 다시 Fade out

넓었지만 낭만적인 느낌의 유화물감 팔레트가 화면에 딱 찬다.

명화를 감상하던 남자가 고개를 돌려 오른쪽 유화물감 팔레트가 놓여진 책상을 주시한다.

음향(AUDIO)

영상(VIDEO)

(NA) 물을 타지 않은 맥주 클라우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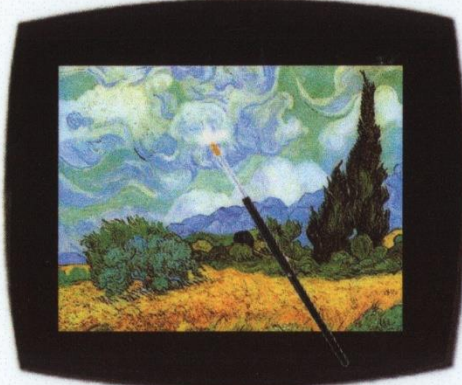
앞컷의 유화물감 팔레트 장면에서 점점 ZOOM OUT 되어 전체적인 책상의 모습이 보이고, 그 위에는 청량한 느낌의 클라우드 한 잔이 놓여져 있다.

(NA) 유화보다 더 풍부하고,



맥주잔의 거품쪽으로 FADE IN 된 뒤, 남자가 쓰던 붓에 클라우드의 풍부한 거품을 조금 묻힌다.

(NA) 유화보다 더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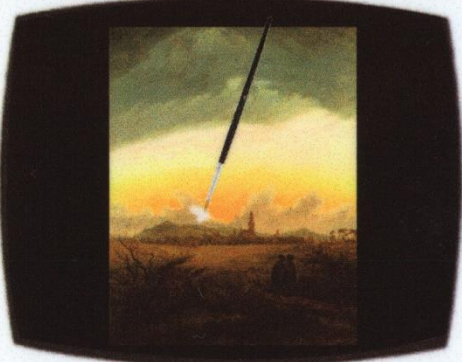


클라우드의 거품을 묻힌 붓으로 유화의 구름 부분에 마지막 터치를 하게 되고, 이로써 명화가 온전히 완성된다.

(NA) 유화보다 더 영원한 맥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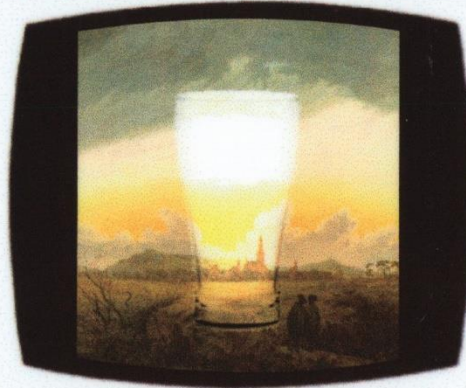
같은 방식으로 다음 작품의 구름 부분에도 마지막 터치를 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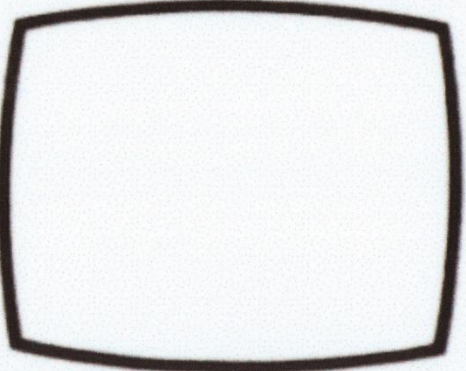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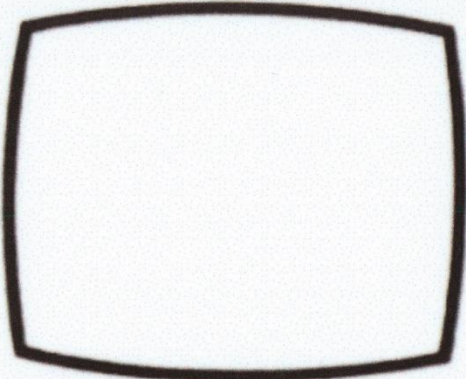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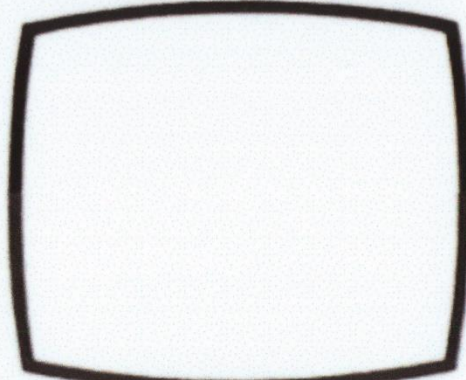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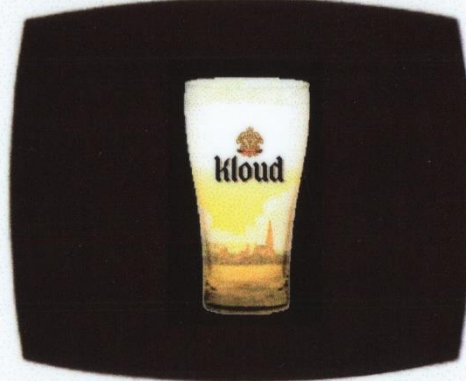
마지막 작품에도 붓으로 구름 부분을 터치해 줌으로써, 유화는 명작으로 거듭난다.

음향(AUDIO)

(NA) 오리지널 그래비티 공법의



(NA) 물을 타지 않은 리얼 맥주,
클라우드



영상(VIDEO)

빈 맥주잔이 FADE IN 되어
유화 속의 배경이 마치 맥주 잔 안에 담긴
거품이 풍부한 맥주처럼 묘사된다.

맥주병 이외의 배경이 서서히 검은색으로
변하고, 맥주잔 가운데 클라우드 로고가
FADE IN 된다.